

지역 軍부대와 和合의 한마당

제10회 이동면민의 날 체육대회에 5군단 장병 참가

포천시 이동면 체육회(회장 권중현)는 10월11일 오전11시 이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0회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권중현 이동면 체육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에 5군단 장병들이 참가하게 된 것은 한기호 군단장의 배려라고 강조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시더라도 이동면에서 오랫동안 추억한 간직하시고 새로운 군단장님께 인수인계를 잘해 달라"고 부탁하고 "오늘 하루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오늘 이동면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모습을 만나니 흐뭇하고 즐겁다"며 "오늘 행사가 즐겁고 유익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오늘 체육대회는 모처럼 5군단 장병들과 이동면 주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모인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과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근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마을과 마을, 주민과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친목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이동면 발전의 초석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이동면장은 "건강한 사람만이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며 "오늘 이동면민의 날이 서로서로 하나되는 귀중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5군단장은 "권중현 이동면 체육회장님이 부탁하신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며 하트를 그려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10월10일 반월아트홀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제6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식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제6회 포천시민의 날’ 축하행사 개최

반월아트홀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려

포천시는 10월10일 반월아트홀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제6회 포천시민의 날 기념식과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시 승격 6주년 기념식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 축하 영상 메시지, 시민현장 낭독, 문화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장원 포천시장은 "제6회 시민의 날을 축하하며 오늘이 새로운 결실을 다짐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6회 문화상 시상식은 교육부본전속교(57.이곡초등학교 교장), 지역사회개발 부문 순병락(52.경천초 지도위원장), 체육부본 전재연(26.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가 수상했으며,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민상 ▶법질서확립 이윤식 ▶농어촌발전 조문화 ▶사회복지 오상운 ▶지역경제 안천호 ▶환경보전 임종석 ▶문화예술 김광덕 ▶체육진흥 황선원 ▶통일안보 김중기 ▶주민자치위원 ▶이영숙 ▶김태환 ▶최영훈 ▶최희선 ▶권혁주 ▶이혁주 ▶이상필 ▶김영진 ▶송영일 ▶전상수 ▶박종엽 ▶김영배 ▶정해일 ▶윤선옥 ▶포천시장 표창(통·리장) ▶채은범 ▶유경석 ▶김경중 ▶김중문 ▶김수산 ▶정대원 ▶신만순 ▶원원희 ▶정봉영 ▶정용부 ▶이만훈 ▶임완빈 ▶이준모 ▶우석철 ▶포천시시장 표

- 창(남·녀 새마을지도자) ▶이진형 ▶이완우 ▶신화천 ▶김정경 ▶최보규 ▶이우진 ▶김승천 ▶이영복 ▶오경택 ▶조순구 ▶현종관 ▶오명선 ▶김태동 ▶서용석 ▶조경화 ▶신승예 ▶이미화 ▶노훈신 ▶홍금선 ▶조봉숙 ▶이미자 ▶윤희예 ▶이미경 ▶진금자 ▶서춘자 ▶박경애 ▶박혜자 ▶연규례 ▶포천시시장 표창(사회단체) ▶정대원 ▶윤순재 ▶신재원 ▶노복자 ▶곽희복 ▶장영옥 ▶이상교 ▶이진성 ▶정희의 ▶이명오 ▶이종열 ▶김승모 ▶서춘오 ▶이미연 ▶김희숙 ▶박화숙 ▶포천시시장 표창(군부대) ▶박이규 ▶황호빈 ▶이상욱 ▶김중택 ▶박동수 ▶임미순 ▶김원호 ▶윤선진 ▶염영화 ▶도시회 의장 표창 ▶김성래 ▶장태환 ▶이상호 ▶이선민 ▶이현희 ▶김석배 ▶박종우 ▶고은주 ▶박정숙 ▶최남규 ▶강선일 ▶고진숙 ▶양승조 ▶함관용 ▶경철시장 표창 ▶조동진 ▶유현경 ▶김경중 ▶최명도 ▶김재숙 ▶교육장 표창 ▶장철석 ▶류이현 ▶서정자 ▶안재신 ▶김수미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이동면 체육회는 10월11일 오전11시 이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0회 면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젠 외로워하지 마세요”

옛 은사 가족 돕기 청성초 27회 동창생

포천시 근내면 청성초등학교 제27회 동창생들이 당시 스승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고 주봉련 스승의 미망인 박영애(81) 여사가 힘들게 생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금을 전달해 감동을 주고 있다.

“배우고 익히기에 힘써 네 이웃의 길잡이가 되라”는 고 주봉련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살아온 이들 동창생들은 10월16일 오후1시 신명동에서 스승의 가족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금 300만원을 모아 전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동창생 이진모 장군(준장, 1군단 부군단장)이 27회 동창생들에게 남들도 돕고 사는데 은사의 가족을 모른척 할 수 있느냐며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너도나도 성

금을 보내왔다. 편지를 보낸 이진모 장군은 “스승의 꿈은 가르침은 사회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큰 힘을 주셨다”고 밝히고 “옛 스승의 가족들이 어렵게 생활한다는 소식에 동창들이 선뜻 모금에 동참해 약소하지만 성의를 전달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청성초교 27회 김재성 회장은 “오랜 친구들과 선생님 가족을 돕게 돼 기쁘다”며 “홀로 남으신 사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이 자리를 빌려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함께 기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박치문 스승(전 청성초교 교감)의 쾌유를 빌면서 옛 은사의 가족 돕기가 일



회상에 그치지 않고 모임을 정례회 시켜 지속적으로 돕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웰빙 부사의(不思想)

혁신(革新)과 창조(創造) 65

혁신은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

의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상상(imagination)에서 오는 것이다. 어떤 시절 상상(想像)을 심어주는 것은 만화(漫畫)다. 카툰(cartoon)이다. 만화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어린이들이 만화나 게임(game)에만 관심이 있다면 만화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격려(激勵)해주고 빠르게 이끌어줘야 한다.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거기서 창의력(creative mind)이 샘솟고 창조(創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창조라는 뜻을 지닌 크리에이티브는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에서 유래한 것이다. 오리지널(original)이란 처음이고 새로운 것이란 뜻이다. 처음으로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낸다는 말이다. 오리지널은 창조(創造)의 시발이고 상상(想像)은 창조의 시발이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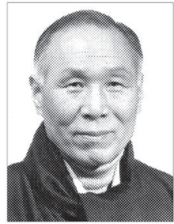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존의 관습(慣習)에 안주하려 한다.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몸에 익어있기 때문이다. 낯선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낯선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잡자리만 옮기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습에만 젖어있을 수 없는 것이 세상(世上)의 이치이다. 관습에만 젖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시대(時代)는 변하고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 것만을 고집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오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데이터(data)는 바뀌었다. 그런데도 옛 것만을 고집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만이 창의(創造)가 아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창의적(創造)인 것이다.” 남이 안 한다고 방패막이만 할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해보는 것이다. 자신이 한 번 그곳에 가 보는 것이다. 그곳의 기후풍토(氣候風土)에 부딪쳐 보는 것이다. 그 순간 새로운 것이 보일 것이고 무언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창의(創造)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창조(創造)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창의적인 생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축적(蓄積)된 데이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축된 자료(資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일차적인 프라이머리 데이터(primary data)가 아니라 이차(secondary data) 삼차적인 데이터(third data)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체계적(systematic)으로 의미(meaningful) 있게 재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WTO 시대에 살고 있다. WTO 시대란 빗장을 열어놓고 경쟁(競爭)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빗장을 열어놓고 전 세계 누구와도 경쟁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혁신(革新)하고 창조(創造)해야 한다. 무언가 새롭게 해야 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다. <011-9262-4491>



이규임 인력양성정책위의 명예위원

혁신(革新)은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창조(創造)는 애초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영어로는 혁신을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고 하고 창조를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라 한다. 이노베이션이란 기존에 있던 것에 무엇을 하나 새롭게 추가(追加)하는 것이다. 곱에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곱에 손잡이를 달았다면 그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것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무언가 효율적일 때 그것을 이노베이션이라 하고 혁신이라 하는 것이다. 혁신(革新)이란 말은 원래 무두질에서 유래한 것이다. 무두대로 날가죽의 기를 곱을 뿔어내고 곱게 두드려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것을 혁신(革新)이라 한 것이다.

창조의 시발은 크리에이티비티에서 오는 것이다. 창의적(創

ESSAY

가을날의 추억



김미경 주부영어기자단 부단장

“오빠 너 열여섯.” “오빠 나 나갈거야.” 제 동생과 저는 방문을 붙잡고 오빠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오빠는 저와 제 동생을 돌보는 것이 귀찮아서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친구들과 놀러나가 버렸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서로 방에서 끌어안고 울고불고 야단칩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이웃집 아저씨가 오셔서 자물쇠를 뜯고 방문을 열어주어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빠가 부모님께 혼이 난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아들 셋을 낳으신 후 딸 둘을 낳으신 부모님은 밖으로 일하러 나가실 때면 큰오빠에게 저희 자매를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등학교이던 큰오빠는 어린 저희들을 돌보는 게 귀찮기는 하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예 방에 가두고는 방문을 밖에서 잠근 채 친구들과 놀러나가 버린 것이죠.

어린 시절 저는 이렇게 오빠를 따라다니며 놀았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가을엔 놀 거리가 더 많았죠. 저는 포천시 영북면 운전이 고향입니다. 운전은 제가 어릴 적부터 군부대와 산이 참 많은 곳입니다. 억새꽃이 유명한 명성산의 산정호수와 한탄강을 끼고 있는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천혜의 고장입니다. 가뭄과 풍수를 모르고 살 정도로 물 좋고 산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주로 산에서 놀다 노는대 요즘처럼 도로가 한창인 철엔 저와 오빠들은 두껍고 큰 도토리 잎사귀를 뜯어내어, 이쑤시개만큼 마디가 있는 풀을 마디마다 똑똑 잘라 그것으로 도토리 잎을 엮어 모자를 만들어 쓰고,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참 멋있어 보였어요. 도토리 잎으로 만든 모자와 옷은 잘 떨어지지 않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렇게 만든 옷을 입고 마치 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산을 누비며 총사육을 하고 다니고 가을 열매를 따 먹기도 하죠. 그러다 가끔은 잎사귀 뒤에 숨은 뱀기도 쓰이거나 밤에 쓰이기도 하죠. 쫓기에 쫓겨서 통통 부은 손을 입으로 빨아내고 아픈 줄도 모르고 종일 쏘다닙니다. 밤에 쓰이면 친구를 잡이나, 저희 집에서 똥장을 몰래 떠다가 빌려주기도 했죠.

오빠들과 저는 산등성이 비탈진 언덕 바위틈에 굵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잎사귀 큰 나무를 위에 얹어 제법 큼직한 아지틀을 만듭니다. 바닥엔 풀신한 풀도 깔아두죠. 그곳에서 먹고 자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면서 놀다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놀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 중턱에서 미끄러움을 타고 노는 것입니다. 들불이 메마른 산 중턱에서 비로포대를 하나씩 들고 올라가 미끄러움을 타고 내려오는 것인데 어린 시절 놀이터가 따로 없었던 우리들에게 최고 놀이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스피드와 속

도감이 지금 생각해보도 다시 해보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은 오빠가 율미 새끼를 어디서 주워 온 적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새장에 넣어 두고 키웠는데 틀들에서 버를 배시는 아버지에게 점심을 가져다 드리면서 재미 삼아 버도 베어보고, 돌아오는 길에 논두렁에서 밭에 채이도록 풀 짹짹 뜯어다니는 개구리를 잡아서 큰 강아지풀 가지에 주렁주렁 엮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잡아 온 개구리를 풀로 짙어 작은 조각을 내어 입으로 새소리를 흉내내며 먹여주면, 율미는 아주 잘 받아먹었습니다. 참 신기했죠.

한 낮에는 큰 눈을 잘 뜨지도 못하고 종일 잠만 자는 것 같은데 먹이를 주려고 소리를 내면 눈을 잘 뜨고 정말 잘 먹더라고요. 오빠가 어디서 새알을 주워와 부화시킨다고 바구니에 담아 아랫목에 넣어두고 풀어주기도 했지만 끝내 부화시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

산에서 종일 놀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의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저희들은 모두 얼굴이 개렇게 그들은 영락없는 산골마을의 촌뜨기들이었죠. 그렇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다고 정말 큰 꿈을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과 들을 누비며 놀던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비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파트 빌딩만 바라보며 자라고 놀이감이라고 컴퓨터 게임, 그리고 핸드폰으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겠죠.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들녘에서 뛰놀고 산을 오르내리며 체력을 기르고 소리내어 울고 웃던 저의 어린 시절에 비해 너무 조용히, 개인적인 놀이에만 집중하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산과 들을 누비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 부모들의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하면 떠오를 수 있는 고향과 추억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한번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닌텐도, MP3, 핸드폰을 치우게 하고 이 가를...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한번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 어린 시절의 놀이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지냈던 어린 시절 그 추억을 들려주면서 말이예요.

자유기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정은옥 주부영어기자단 영동면지부장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밤, 애 아빠와 트러블에 찌든 나는 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평소 애 과묵하고 말없는 둘째딸 언지가 가슴에 조그만 담요를 안고 나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내게 건네 주었다.

차를 몰고 나온 나는 고양이에 시는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신세한탄을 하며 눈물을 펄펄 쏟아냈다. 두어 시간 여기저기를 다니다보니 벌써 자정이 넘어서고 있었다. 오빠네 집을 가자니 널모래 백세를 바라보시는 친정 아버지 걱정이 맘에 걸리고 친구네 집을 가자니 거기도 멀고 자존심도 상하고 여자는 집을 나오면 어찌 이리 갈 데가 없을까?

나만 그런 것일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할 수 없는 가계로 돌아와 154cm 작은 키가 간신히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조그만 평상 위에 정기간발 스니커를 올리고 작은 딸이 건네준 담요를 덮고 새우잠을 잤다. 그런 시간들이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문사에서 임원회의와 특강이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왔다.

그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에 아이들의 아침 등굣길을 도와주러 집엘 들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막내딸 보리가 한 장의 편지를 나에게 건네주며 나를 껴안아주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엄마가 저의 시야에서 안보이면 세상이 무섭다고 보리가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에 있으라며 사랑한다는 하트를 빨강색 크레용으로 크게 색칠을 하고 1차에서 0이 수없이 들어가 셀 수도 없는 액수의 수표를 그려 “엄마 부자 주세요.”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S4용지 알투로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다.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어찌 원통을 보러 다닌 나

의 행동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 았나. 엄마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어린 딸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신문사 특강이 있던 날 양주승 자원위원님의 특강 내용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면 자신이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사회의 모든 관계는 곧 믿음이다.”,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라”,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가정은 자녀가 꼭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불교, 유교, 기독교의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주었다. 사회의 모든 관계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열 달 배워야 하는 지식과 검은머리 파뿌리 되자고 맹세했던 부부가 꾸러나가는 가정은 더 말할 나위 없으라.....

저의 직장생활도 버거울 텐데 엄마의 빈자리를 맡았어 매워지면서 고 둘째 동생과 초등4년 막내 동생까지 묵묵히 챙겨주며 살림까지 도맡은 큰딸은지, 또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여 평균 13점이나 올린 언니나 담당하고 당차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래서 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바쁜 둘째딸 언지, 내 나이 마흔 둘에 낯은 늦둥이 보라, 항상 애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욱더 안쓰러웠는데 엄마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엄마와 통화하느라 한 달 동안 써야할 휴대전화 통화를 일주일만이나 다 써버린, 그래서 1633콜렉트콜로 전화하는 사랑스런 막내 보라.

나에게 이렇게 든든하고, 당차고, 사랑스런 세 딸이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을 바꾸니 세상이 이렇게 환해 보일 수가 없다.

詩

빛을 발하는 중년의 잣대



박혜자 주부영어기자단 부단장

쫓빛 가을 하늘을 머리에 이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내게 채워진 족쇄는 애휴~~ 왜 그리 많은지 그래도 마음만은 언제나 자유를 향해 활활 날고 있다.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일도 즐기면 성취감 또한 만만치 않다. 고달픈도 바쁘도 내 현실의 운명이다. 그래~ 피할수 없다면 차라리 즐기자.

직장과 지역사회 참여가 어찌 그리 만만하던가? 50년 훨씬 넘은 세월을 자유롭게 살았으니 모든 사람들인들 어떻게? 나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삶의 스트레스의 한계를 넘어 가끔은 돌아 버릴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요즘은 중요한 부품의 나사하나 빠진 것 마냥 이래도 재래도 웃는다.

그래서인지 저 높은 가을하늘 바라보면 무작정 내달아 나가고 싶다 자유를 찾아서 예전에는 너무 흔한 모든 것들이 이제 꿈이 되고 있는 것이라.

이 가을, 그럴 수만 있다면 떠나려. 더 늙기 전에 젊음을 만끽하기 위하여 거침없는 중년의 자유를 위하여!